

'완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접수 6월 7일~9일... 20개 작품 선정 시상·최대 300만원 상금

완주군이 차별화된 토탈관광정책 추진을 위해 그간 불거러, 먹거리, 즐길거리 위주의 관광마케팅 정책에서 벗어나 '사고 싶고, 간직 하고 싶은 완주' 관광모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탈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그 시작으로 완주의 문화적 특색과 스토리가 반영된 감각적인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한 제1회 완주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 공고하며, 작품 접수는 6월 7일부터 9

일까지 출품자가 직접 군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념품 디자인 등에 관심 있는 사람 및 업체를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상품화 가능성이 없거나 타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등은 출품이 제한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0개 작품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분야별 각각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 내용은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실속 있게 투여할 수 있는 전북투어

패스 상품권과 완주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선정된 작품은 완주종합관광안내센터 등 주요시설에 전시할 예정이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초년도인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발굴에 집중하고 선정된 우수상품은 홍보와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063-290-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

10개교 1000여명 대상

무주군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새 학기를 맞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1,000여 명의 학생들을 찾아가 진행한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도로명주소 시청각자료 상영, △도로명주소 O,X퀴즈 맞추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연홍 토지관리담당은 "초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지고 실생활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한 것"이라

며 "단순한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념과 체계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학생들은 △우리 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알아보고, 직접 작성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만일의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도 있고 불류비용 등도 줄일 수 있다고 배웠다"며 "택배나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집 주소를 써야 할 때는 꼭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얼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알려 주어야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시·군의회 의장단 월례회의 개최

전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제226차 월례회의가 23일 진안군 홍삼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김명지 의장단협의회장과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이항로 진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 자치의 발전과 상호 간의 공동 및 정보 교환 각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협의회에서는 전북도의 주요 현안문제를 채택,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정옥주 부의장의 제안으로 '상전~안전 간 국도 확·포장 사업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무주 간 국도 중 4차로 확·포장 사업에서 15km 구간이 제외되면서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통행차량들에게 사고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들어, 도로 확·포장을 통해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석 진안군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전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금강벼룻길권역을 창조적마을로 변신 시동

무주군,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농산물체험·판매장 조성 등

무주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벼룻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강벼룻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2015~2018 / 부담면 대소, 고창, 장안리 일원 3,410ha / 총 사업비 30여억 원)은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설명회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각 분야별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기반생활기반확충 부문의 금강벼룻길권역 센터리모델링, 어울림마당 조성 등 5개 사업과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체험·판매장, 농·특산물 가공장 조성,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도소마을 가

로경관 개선, 장안마을 숲 정비 등 6개 사업, △정보화 구축과 컨설팅 등의 주민역량강화 부문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태현 부군수는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이 돼서 금강벼룻길 권역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주기를 바란다"며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운영에 있어서 낭비 요소들은 없는지도 분석해 제대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장수군은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이용편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산서, 장계면사무소 등 2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및 나머지 5개 읍·면(장수,번암,천천,계남,계북)에 추가로 총 6대를 1억2,000만 원의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설치 완료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로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등 총 53종의 민원서류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먼지역 주민들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 해야 발급 가능했던 등기부등본을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읍면사무소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민원인 편의 도모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도 창구 방문보다 50% 저렴하게 발급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공원 정비 10월까지 실시

장수군 산림복지과는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산서 마차공원 등에 대한 시설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으로 산서 마차공원에 9,000만 원을 투입, 공원 내 주차장 포장, 음수대 보강, 수목식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계남중학교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명상 숲을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소나무철쭉 등 1,285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 서구리에서 진안 백운구간에 가로수길을 조성, 장수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으로 기존 가로수도 병해충방제 및 전지작업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적기 개화도 꽃이 어우러진 장수를 연출 관광지원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재홍 산림복지과장은 "공원 및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성, 장수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공원 및 화단의 제조작업 적기 실시로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토양분석 무료 시행 홍보

경영비·노동력·병해충 줄고 수확량 증가 1석 4조 효과

진안군은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비료와 퇴비 살포 전 반드시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표준시비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매년 무료로 시행하는 토양분석사업 홍보에 나섰다.

토양분석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N), 인산(P), 칼리(K) 등의 양분함량을 분석하여 작물별 적정 시비량을 추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토양분석은 작물 수확 직후나 비료 살포 전에 해야 제대로 토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채토 및 분석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비료와 퇴비를 사비 처방량보다 과다 투입해 병충해 발생, 웃자람 현상 등을 야기시켜 농산물 수확량과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영비 과다와 노동력 투입,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의

원인도 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적정시비량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군의 토양분석 계획량은 약 2,500여점으로 친환경, 대표필지, 직불제, 개량제사업 등의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경식(51)씨는 "토양검정을 하여 실천하니 경영비·노동력·병해충이 줄고 수확량은 증가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용담댐 수질과 미야산 청정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토양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중금속 분석까지 시행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도내 장애인 여가활동 증진 재할레포츠 프로그램 실시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전북지역 장애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재활레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제1회 재활레포츠 프로그램은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과 전북지역의 8개 장애인복지관(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무주종합복지관,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1일차 전주한옥마을 트래킹, 한복체험, 인절미 만들기 체험, 한옥스테이와 2일차 전주박물관 관람 및 제기차기, 굴렁쇠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3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 재활레포츠 프로그램 2회기는 부안군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한방 요실금 예방교실' 진행

완주군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요실금 예방교실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요실금은 뛰거나 움직일 때, 크게 웃거나 또는 재채기, 기침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소변을 말한다.

이에 군은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년여성 건강교실을 운영한

다.

이런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선별해 상담과 침, 뜸 등 한의약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복부 순환기능 강화에 좋은 쑥뜸, 근육강화를 위한 케겔운동, 비뇨장에 개선을 돕는 한약차량 등 요실금과 전립선 예방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